

## 유도 질문이 아동 진술에 미치는 영향

박 자경, 이 승복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최근까지 범죠헌장이나 기타 사건에서 아동의 진술은 성인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간주되었다. 아동이 더 나이든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유도 질문을 듣는 경우와 사건 이후에 잘못된 정보에 노출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어린 아동의 진술 능력을 더 나이든 아동이나 성인과 비교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도 질문이 아동의 진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도 질문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하고 (실험 1), 유도 질문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후 진술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려고(실험 2) 하였다.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은 질문에서 유도된 반응을 많이 하였는데, 곧 유도 질문에서 제시된 주어진 정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 오류가 증가했다. 실험 2에서는 사건 이후에 유도 질문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시받은 아이들에게 이후에 다시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았다. 결과 유도 질문의 주어진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를 긍정하는 오류를 보였던 아동들은 이후의 기억검사에서도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질문에서 유도된 반응을 많이 하며 이후의 기억검사에서도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범죠헌장이나 기타 사건에 대한 증인의 진술은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아동은 성인에 비해 진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어서 아동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간주되었다.

특히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아동만이 유일한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동 진술을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범죠헌 장면이나 학대 경험 등은 아동의 일상 생활과는

매우 다르므로 이런 경험들에 대해 아동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어진다.

최근 아동의 진술능력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의 진술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성인에 비해 부정확한 진술을 많이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린 아동들(3-5세)이 더 나이든 아동(6-10세)이나 성인에 비해 부정확한 반응을 하는 것은 유도 질문이나 반복질문을 듣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유

도 질문과 같이 질문이 암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동은 질문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증가하므로 아동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한다(Cohen and Harnick, 1980; Carter, Bottoms, and Levine, 1996; Goodman and Reed, 1986).

아동의 진술에 있어 암시성(suggestibility)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사건 이후 어떤 정보에 노출되고 나면 어린 아동들은 나이트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사건 이후의 정보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Oates & Shrimpton, 1991; Ornstein, Gordon, & Larus, 1992).

그러나 아동들이 성인에 비해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아동들이 모든 상황에서 성인에 비해 부정확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Fivush, 1993; Goodman, Rudy, Bottoms, & Aman, 1990). 암시성에 대해서도 사건 이후의 정보가 기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결과도 있다(McCloskey & Zaragoza, 1985). 사건 이후에 제시된 잘못된 정보가 아동 진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태이다.

## 1. 유도 질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최근 과연 아동이 증인이 될 능력이 있는가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Ceci, Ross, & Toglia, 1987; Ceci & Bruck, 1993; Cole & Loftus, 1987; Doris, 1991; Goodman & Bottoms, 1993; Perry & Wrightman, 1991). 특히 학대 경험이나 범죄 현장에 대한 기억 등 일상과 매우 다른 경험에 대해 아동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는지가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곧, 아동의 기억 및 진술의 정확성 여부에 관한 연구들이다.

아동의 진술능력을 비교한 많은 연구들은 아동

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성인이 진술한 내용과 비슷하게 진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Dekle et al., 1995; Goodman & Reed, 1986; Marin, Holmes, Guth, Kovac, 1979; Parker & Ryan, 1993; Peters, 1991). 특히 치과를 가거나 예방 주사를 맞는 일과 같이 아동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들은 아주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된다고 한다 (Fivush, Hudson, and Nelson, 1984; Goodman, Aman, and Hirschman, 1987; Peters, 1987). 더구나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로 행위에 참가한 경우는 사물이나 객체에 대한 기억이 아닌 행위에 관한 기억이다. 이 행위에 대한 기억은 취학 전의 어린 아동들조차도 매우 오랫동안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Davies, Tarrant, and Flin, 1989; Rudy and Goodman, 199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보면 아동에게 매우 특출한 사건이었을 범법 현장에 대한 기억, 특히 피해 당사자로서의 기억은 비교적 정확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특별한 사건에 대해 아동이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에 비해 부정확한 진술을 한다는 결과들도 보고되었다. 유도 질문이나 반복질문과 같이 질문의 내용에 어떤 암시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Ceci, Ross and Toglia, 1987; Lepore and SESCO, 1994; Loftus and Palmer, 1974).

Cohen과 Harnick(1980)는 유도 질문의 효과를 아동과 성인을 상대로 연구하였다. 9세, 12세, 대학생들을 상대로 간단한 범죄 상황을 보여주고 유도 질문을 한 결과 유도 질문에 있어 연령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곧, 9세 연령 집단에서는 다른 두 연령집단에 비해 유도 질문의 효과가 뚜렷하였다.

Dale, Loftus and Rathbun(1978)도 4세, 5세 아동들에게 사건에 대한 필름을 보여주고 필름에

있거나 없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질문들은 각기 암시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 결과 질문 내용이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는데, 필름에 없고 질문에만 있던 내용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았다. 곧, 필름에 없던 내용을 있던 것처럼 암시한 경우에만 아동들은 질문 내용에 영향을 받아 잘못 대답하였다.

Goodman과 Reed(1985)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들은 3세, 6세, 성인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자유회상을 하게 하였다. 결과 어린 아동들(3세)이 회상한 내용은 성인에 비해 적었으며 유도 질문이나 객관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유도 질문에서 어린 아동들이(3세) 나이든 아동 집단(6세)에 비해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5세 아동들을 상대로 유도 질문의 효과를 알아본 Carter 등(1996)의 연구에서도 유도 질문을 들은 아동들은 객관적 질문을 들은 아동들에 비해 질문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도 질문을 들은 아동들이 객관적 질문을 들은 아동들에 비해 '모르겠다(don't know)' 반응을 많이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유도 질문을 들은 아동과 객관적 질문을 들은 아동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곧 실제와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유도 질문을 들은 경우라 하더라도 아동들은 '모르겠다'는 반응을 피하고 유도 질문이 암시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린 아동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 성인에 비해 매우 부정확한 반응을 보인다는 이상의 결과와는 달리 유도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 아동과 성인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 Marin, Holmes, Guth와 Kovac(1979)은 5세에서 22세의 피험자들을 상대로 언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목격하게 한 후, 그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유도 질문의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연령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곧 아동이나 성인 모두 유도 질문에서 부정확한 응답을 많이 하였다. 또

한 Duncan, Whitney와 Kunen(1982)은 6세, 8세, 10세 아동들에게 만화 슬라이드를 보여준 후, 슬라이드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질문은 사실적이거나 암시적인 내용이었다. 아동들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의 양을 통제된 결과, 유도적인 단서의 효과는 어린 아동들에게 오히려 덜 나타났다.

아동들이 유도 질문에 의해 어른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곧 유도 질문을 듣는 경우 어린 아동일수록 유도 질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와 어린 아동들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나 더 나이든 아동에 비해 항상 유도 질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유도 질문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연구마다 유도 질문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유도 질문의 조작적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유도 질문의 정의

아동이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유도 질문이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유도 질문이란 형식이나 내용을 통해 어떤 응답이 바람직한 것인지 암시를 주거나 또는 응답자로 하여금 기대되는 방향으로 응답하게끔 하는 것이다 (Loftus, 1974). 유도 질문의 영향을 알아보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정의에 근거하여 유도 질문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연구마다 유도 질문에 포함된 암시의 형식이나 정도가 각기 달랐다(2쪽, "유도 질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참조).

Loftus와 Zanni(1975)는 정관사(the)를 통해 어떤 정보를 사실로 전제하게 하는 질문을 유도 질문으로 보고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실험에서 각 피험자들은 필름을 보았고 이후에 그 필름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질문 1. Did you see a broken headlight?

(당신은 깨어진 한(a) 헤드라이트를 보았습니까?)

질문 2. Did you see the broken headlight?

(당신은 깨어진 그(the) 헤드라이트를 보았습니까?)

위와 같은 질문을 각각의 피험자에게 하였다. 필름에서 실제로 깨어진 헤드라이트는 없었으나 질문 2에서는 정관사(the)를 이용하여 깨어진 헤드라이트가 있었음을 암시하였다. 질문 1을 들은 피험자들에 비해 질문 2를 들은 피험자들은 '예'라는 틀린 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 곧, 질문 2에서 사람들은 깨어진 헤드라이트가 있었다는 정보를 정관사(the)를 통하여 암시 받았고 이 경우 피험자들은 '깨어진 헤드라이트'는 미리 전제하고(주어진 정보로 보고), '스스로 헤드라이트를 보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오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유도 질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의를 내린다면, 유도 질문이란 질문의 제시방식을 조작하여 질문자체가 사건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는 형식의 질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곧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의 문장 형식을 통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주어진 정보로 제공하고 실제와 같은 다른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제시되는 질문이다.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 문장 구조 내에서 듣는 이는 주어진 정보로 제시되는 정보를 실제 일어난 정보로 전제하고 새로운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 문장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Hornby, 1974). 따라서 주어진 정보의 내용이 틀린 경우,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되므로 오류가 증가하게 된다(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 계약; Clark & Clark, 1977).

정관사(the)를 통해 암시를 제공한 Loftus 등(1975)의 연구 결과도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의 형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주어진 정보의 표지인 정관사를 이용하여 질문을 하면, 피험자들은 '깨어진 헤드라이트'를 전제하고 새로운 정

보인 '헤드라이트를 보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류가 증가하는 것이다.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 계약은 성인 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관찰되었다(Hornby, 1974; 이승복 1987).

Hornby(1974)는 문장 검증 과제를 통해 아동들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검증은 정확하지만 주어진 정보는 검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강아지를 안고 있는 소녀'의 그림을 본 후 각각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1. "고양이를 안고 있는 것이 소녀인가?"

질문2. "강아지를 안고 있는 것이 소년인가?"

질문 1의 경우 주어진 정보는 '고양이를 안고 있다'로써 실제와는 다른 내용이며 새로운 정보는 '소녀인가?'로 탐색해야 할 대상에 관한 것이다. 질문 2에서는 주어진 정보는 '강아지를 안고 있다'로써 실제와 같은 내용이며 새로운 정보는 '소년인가'이다. 그 결과 질문 1과 같이 주어진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질문 2에 비해 오류반응을 많이 하였다.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승복(1987)의 연구(실험 4)에서는 이전의 이야기에서 반복된 정보를 주어진 정보로 조작하였다. 아동에게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끝에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들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게 하였다. 이 경우 아동들은 주어진 정보는 검증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만 탐색하여 판단을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도 질문을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의 문장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의 문장 형식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어진 정보로 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질문인 것처럼 제시하여, 새로운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유도하는 질문을 유도 질문이라고 정의하였다. 곧, 주어진 정보에 들어

있는 틀린 정보를 전제된 것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잘못된 대답을 유도하는 형식의 질문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지영이가 흰색으로 만든 건 동그라미니?”의 경우 ‘흰색으로 만들기를 했다’는 암시는 주어진 정보로 제공되며 ‘동그라미를 만들었니?’는 새로운 정보로 제공된다. 곧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 이미 ‘흰색으로 만들기를 했다’는 암시를 제공하고 ‘동그라미를 만들었는지’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이때 주어진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 응답자는 흔히 주어진 정보를 사실로 전제하고 새로운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게 된다. 곧 실재는 흰색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긍정하는 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유도되는 것이다. 반면에 “지영이가 만든 동그라미는 흰색이었나?”라고 묻는다면, ‘흰색’에 대한 정보가 새로운 정보의 형식으로 주어지므로 흰색이 아니었다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3. 유도 질문이 이후의 진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성인에 비해 유도 질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들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아동 진술의 암시성(suggestibility)도 큰 문제가 된다. 암시성이란 사람들이 사건 이후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 속에 포함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암시성에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① 암시성은 무의식적인 과정이며, ② 사건 이전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정보에 의한 것이며, ③ 기억에 근거한 것이다(Gudjonsson, 1986).

Ceci와 Bruck(1993)은 아동의 경우, 암시성이란 인지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좀 더 확장된 개념을 제안하였다. 곧, 사건에 대한 부호화, 저장, 인출, 보고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요인의 영향 뿐 아니라 질문자에게 동조하는 현상과 같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사건 이후 뿐 아니라 아동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고정관념과 같은 사건 이전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암시성과 그 인지적,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상당히 증가하였다(Ceci, Ross, & Toglia, 1987; Bruck, Ceci, Francoeur & Barr, 1995; Murray, 1993).

사건 이후에 제공되는 질문이 이후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로는 Loftus 등(197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필름을 보았다. 필름을 본 직후 피험자들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각 질문은 충돌정도가 다른 단어를 통해 사고의 심각성을 암시하였다. 일주일 후 피험자들은 다시 그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응답하였다.

질문 1. About how fast were the cars going when they hit each other?

질문 2. About how fast were the cars going when they smashed each other?

사건에 대한 필름을 본 직후 질문 1과 질문 2를 들은 피험자들은 필름에 나왔던 자동차의 속도에 대해 응답을 하였다. 일주일 후 피험자들은 필름 속에 깨어진 유리가 있었는지에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실제로는 깨어진 유리가 없었는데도 충돌 정도가 강한 단어(smashed)를 들었던 피험자들은 충돌 정도가 약한 단어를(hit) 들었던 피험자들에 비해 깨어진 유리가 있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건 목적 이후 질문을 통해 암시를 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질문해 보아도 암시성 질문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에서의 경험에 대해 연구한 Bruck, Ceci, Francoeur과 Renick(1995)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일부 아동에게는 의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의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사건 이후 잘못된 정보를 들은 아동들은 그 정보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Ceci 등(1987)도 세 단계 절차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아동의 암시성을 연구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아동에게 어떤 이야기(story)를 들려주고 두 번째 단계에서 잘못된 정보와 중립적인 정보가 포함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들에게 재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번째 단계에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이야기를 들었던 아동들은 중립적인 정보가 포함된 이야기를 들었던 아동들에 비해 잘못된 정보와 일치하는 반응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Zaragoza와 McCloskey, Jamis(1987)는 Ceci 등(1987)의 연구가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곧 세 번째 절차에서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두 번째 절차에서 이미 제공되었던 잘못된 항목과 아동이 처음 보는 새로운 항목이었다. 따라서 아동들이 친숙성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의 항목을 선택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에서 곰이 놀이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곰 대신 토끼가 놀이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세 번째 단계에서 아동에게 제공된 항목은 잘못된 정보인 토끼와 고양이었다. 아동이 두 번째 단계의 잘못된 정보인 토끼를 선택한 것은 친숙성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절차에서 제공되는 항목들이 두 번째 절차에서 제공되는 항목과는 다른 수정된 절차를 이용하여 실험을 한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던 아동이라 하더라도 중립적인 정보를 들은 아동들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나이 어린 아동들이 더 나이드는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사건 이후의 정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또한 연구마다 아동의 암시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질문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야기'나 '정보' 보다는 유도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에 타당한(ecologically valid) 연구를 위해 유도 질문이 이후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곧 주어진 정보를 통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실제처럼 가정하게 되는 경우, 이후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 연구 목적

어린 아동들이 나이드는 아동이나 성인만큼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엇갈린 증거들이 모두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진술이 성인에 비해 더 정확하거나 부정확하다는 일반적인 논의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더 부정확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정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가려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어린 아동들이 성인에 비해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상황이란 유도 질문과 같이 질문이 암시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사건 이후 잘못된 정보에 접하는 경우, 그 정보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암시적인 유도 질문을 듣는 경우나 이후에 잘못된 정보에 접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더 나이드는 아동이나 성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실험으로 유도 질문의 효과와 사건 이후 잘못된 정보를 들은 아동들이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도하는 반응을 더 많이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실험 1에서는 유도 질문을 받은 아동들의 반응을 통제 집단(객관적 질문을 받은) 아동들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도 질문을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의 문장형식을 통해 사실과 다

른 내용을 주어진 정보로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잘못된 답을 유도하는 질문형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실험 2에서는 사건 이후에 유도 질문을 들은 아동들이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에 비해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 부정확한 반응을 많이 하는지 알아보았다. 사건 이후에 제시된 정보에 의해 아동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질문자의 이야기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 아동이 접하게 되는 정보는 일방적인 이야기보다는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건 이후에 들은 유도 질문이 이후 사건에 대한 아동의 진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 실 험 1

실험 1은 유도 질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유도 질문을 들은 아동들이 객관적 질문을 들은 아동들에 비해 유도된 반응을 더 많이 하는지 알아보았다. 곧,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의 문장 구조 내에서 아동들이 주어진 정보는 전제하고 새로운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질문에서 유도하는 반응을 많이 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실험 1에서는 기존의 유도 질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유도 질문이란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문장 형식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어진 정보로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질문형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칠하기를 만들었던 경우 "지렁이가 흰색으로 만든 건 동그라미니?"와 같은 질문을 통해 '흰색으로 만들기를 했다'는 암시를 주어진 정보로 제공하고 '동그라미를 만들었니?'는 새로운 정보로 제공하였다.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결합 형식을 통해 이미 흰색으로 만들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제하게 하고 동그라미를 만들었는

지 질문하는 것이다. 대화 당사자인 어린이가 이러한 대화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 계약 (given-new contract)'을 따른다면, 주어진 정보를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새로운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 탐색할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주어진 정보를 사실로 전제하고 새로운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게 되므로 잘못된 반응으로 유도될 것이다.

### 방법<sup>1)</sup>

**피험자.** 청주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5세(5년 3개월-5년 10개월, 평균 5년 7개월) 아동 30명(남아 15명, 여아 15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자극.** 아동과 놀이를 할 때 사용한 자극은 동그라미, 달, 네모 모양의 토막과 색깔 칠하기였다. 놀이과정 중에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시간애 맞추어 뼈빠가 준비되었고 아동에게 줄 젤리뽕, 이를 먹은 후 입을 닦아줄 손수건이 준비되었다.

아동들은 여성 실험자와 놀이를 하였는데 실험자는 안경을 쓰지 않았고 목에는 물고기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실험자는 짧은 머리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까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놀이과정에 대해 묻는 질문지는 유도 질문과 객관적 질문 조건에 따라 그 질문 형식이 다르게 준비되었다.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만든 경우 유도 질문은 '지렁이가 흰색으로 만든 건 동그라미니?'이고 객관적 질문인 경우 '지렁이가 만든 동그라미는 흰색이니?'이다. 실제로 사용된 모든 질문들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절차.** 각 아동들은 유치원에 따로 준비된 놀이 방에서 여성 실험자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였다. 실험자는 모든 아동에게 똑같은 절차로 놀이를 진행할 것을 미리 훈련받았다.

1) 실험을 도와준 민지영과 중앙교회 유치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동 당 놀이에 참여한 시간은 10 여 분 정도였다. 각 아동이 놀이를 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동이 자극을 알지 못해 이후 질문에 응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양이나 뼈뺨, 일회용 반창고 등에 대해 아동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미리 거쳤다.

처음 실험자는 아동과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익힌 후 아동과 함께 찰흙 만들기 놀이를 하였다. 아동들이 특정 색이나 모양에 편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찰흙의 색깔, 만들기 모양은 역균형화(counter-balancing) 하였다.

놀이가 끝난 후 아동은 또 다른 여성 실험자에 의해 준비된 방으로 가서 질문에 응하였다. 객관적 질문과 유도 질문 집단을 역균형화 하여 각 조건에 할당하였고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질문을 받았다. 예를 들어 실험자와 파란색 찰흙으로 동그라미를 만든 경우, 유도 질문 집단의 아동은 '지렁이가 흰색으로 만든 건 동그라미니?'의 질문을 받고 객관적 질문 집단의 아동은 '지렁이가 만든 동그라미는 흰색이니?'의 질문을 받게 된다. 유도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 '흰색으로'는 실제와 다른 내용이며 객관적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 '동그라미'는 실제 놀이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아동들은 실제와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예'라는 응답을 하고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아니오',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할 것을 지시 받았다.

## 결과 및 논의

유도 질문을 들은 아동들이 객관적 질문을 들은 아동들과 비교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 보았다.

조건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확 반응 점수를 표 1 에 제시하였다.

표 1. 정확 반응 점수 평균(전체 4점, ( )안은 표준편차)

성별(피험자수)	조건		
	유도 질문	객관적 질문	전체
남(15)	1.60(0.74)	3.14(0.95)	2.34(1.14)
여(15)	2.00(0.76)	3.47(0.64)	2.73(1.01)
전체(30)	1.80(0.76)	3.31(0.81)	2.54(1.09)

한 아이에게 유도 질문과 객관적 질문이 각기 4문항씩 전체 8문항이 주어졌다. 유도 질문 조건인 경우 아동들의 정확 반응 점수는 전체 4점 중 1.80점이었고 객관적 질문 조건인 경우에는 전체 4점 중 3.31점이었다. 곧 유도 질문에서는 객관적 질문에 비해 정확 반응이 적었다.

또한 여아들의 정확 반응 점수는 유도 질문 조건에서 전체 4점 중 2.0점이었으며 남아들의 정확 반응 점수는 1.6점이었다. 객관적 질문인 경우에는 여아들의 정확 반응 점수가 전체 4점 중 3.47점이었으며 남아들의 정확 반응 점수는 3.14점이었다. 곧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유도 질문이든 객관적 질문이든 정확 반응을 많이 하였다.

다음으로 조건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유도된 반응 점수를 표 2 에 제시하였다.

표 2. 유도된 반응 점수 평균(전체 4점, ( )안은 표준편차)

성별(피험자수)	조건		
	유도 질문	객관적 질문	전체
남(15)	2.13(0.83)	0.53(0.92)	1.33(1.18)
여(15)	1.73(0.80)	0.47(0.64)	1.10(0.96)
전체(30)	1.93(0.83)	0.50(0.78)	1.22(1.07)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도 질문 조건인 경우 아동들의 유도된 반응 점수는 전체 4점 중 1.93점이었고 객관적 질문 조건인 경우 유도된 반응 점수가 0.50점이었다. 곧 유도 질문 조건의 아동들은 객관적 질문 조건의 아동들보다 유도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또한 여아들의 유도된 반응 점수는 유도 질문 조건에서 전체 4점 중 1.73점이었고 남아들의 유도된 반응 점수는 2.13점이었다. 객관적 질문 조건에서 여아들의 유도된 반응 점수는 전체 4점 중 0.47점이었고 남아들은 0.53점이었다. 곧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유도 질문이든 객관적 질문이든 유도된 반응을 적게 하였다.

조건에 따른 아동의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의 정확 반응, 유도된 반응, 모르겠다 반응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성별(남아/여아)X조건(유도 질문 조건/객관적 질문 조건)의 2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유도 질문조건/객관적 질문조건)은 피험자 내 변인이었다.

그 결과 아동의 정확 반응에 대해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28)=55.89, p < .001$ ). 아동의 정확 반응에서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은 아동들이 유도 질문에 비해 객관적 질문에서 정확 반응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28)=2.90$ ). 성별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28)=0.11$ ).

아동의 유도된 반응에 대해 살펴보면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28)=44.79, p < .001$ ). 아동의 유도된 반응에서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은 아동들이 객관적 질문에 비해 유도 질문에서 유도된 반응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F(1,28)=1.36$ ) 성별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28)=0.61$ ).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유도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성별과 조건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유도 질문에서든 객관적 질문에서든 유도된 반응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을 주어진 정보로 암시 받은 유도 질문의 경우 객관적 질문보다 '모르겠다' 반응을 더 많이 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모르겠다' 반응에 대해서는 조건의 주효과, 성별의 주효과, 성별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각각  $F(1,28)=0.81, F(1,28)=0.93, F(1,28)=0.81$ ). 곧 유도 질문 조건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질문조건의 아동들보다 '모르겠다'는 반응을 많이 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Carter 등(199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들은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정확 반응, 유도된 반응, 모르겠다 반응으로 구분하여 살펴해보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질문한 유도 질문의 경우에도 아동들은 '모르겠다'는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곧 아동들은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질문 내용이 자신이 기억하는 바와 다른 경우, 또는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을 한 경우와 같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모르겠다'는 반응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각 조건(유도 질문 조건/객관적 질문 조건)에 따라 아동의 정확 반응이나 유도된 반응은 분명히 차이가 났다. 곧 유도 질문을 들은 경우에는 질문에서 유도하는 반응을 많이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도 질문의 정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유도 질문이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어진 정보'로 제공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정보는 사실로 전제하고 새로운 정보만을 탐색하게 하는 질문 형식이라고 보았다. 예

를 들어 유도 질문 집단의 아동이든 객관적 질문 집단의 아동이든 놀이 상황에서 *파란색* 찰흙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영이가 *흰색*으로 만든 건 *동그라미*니?”와 같이 주어진 정보로 ‘*흰색*으로 만들기를 했다’는 암시를 주는 경우에는 ‘*동그라미*’였다는 새로운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 ‘*흰색*’임을 긍정하는 결과를 보이는 유도된 반응을 하였다. 반면 ‘*흰색*으로 만들기를 했는지’를 새로운 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반응을 하였다. 곧 유도 질문 형식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 암시를 주는 경우에는 응답자가 주어진 정보, 암시를 사실로 전제하고 새로운 정보만을 탐색하게 되므로 오류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 실 험 2

실험 1에서는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이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에 비해 질문에서 유도하는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의 문장 구조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을 주어진 정보로 제공하였던 유도 질문 조건에서 아동들은 주어진 정보는 사실로 전제하고 새로운 정보만을 탐색해 질문에서 유도하는 반응을 많이 하였다.

실험 2는 사건 이후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었던 아동들이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사건 이후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었던 아동들이 이후에 더욱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현재까지 서로 전혀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사건 이후의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나 내용도 연구마다 다르다. 아동들이 사건 이후의 정보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이야기(story)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들이 사건 이후에 접하게 되는 정보는 이야기보다는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유도

질문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아동들이 이후에 이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곧 유도 질문의 주어진 정보를 긍정하는 오류를 보였던 아동들이 그 내용에 대해 묻는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았다.

## 방법<sup>2)</sup>

**피험자.** 청주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5세(5년 3개월-5년 11개월, 평균 5년 6개월) 아동 30명(남아 15명, 여아 15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자극.** 놀이 상황에서 사용한 자극은 실험1에서 사용한 자극과 동일하다.

아동과의 놀이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지는 실험 1과 동일하나 실험 1에서 사용된 8문항 중 4문항을 선택하였다. 4문항은 평균 이상으로 유도된 반응을 많이 하였던 문항이었다. 실제로 사용된 질문들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는 유도 질문과 객관적 질문에 포함된 내용을 간략히 질문하였다. 곧 유도 질문에서는 주어진 정보로 제공되어 아동 스스로 긍정한 내용에 해당하며 객관적 질문에서는 아동이 탐색하여 응답한 새로운 정보에 해당된다. 기억 검사에 사용된 질문들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절차.** 본 실험은 아동과 놀이를 하고 이틀 후 기억 검사를 실시하였다. 첫 날에 한 아동들과의 놀이 상황, 놀이 상황 이후에 제공된 유도 질문/객관적 질문은 실험 1과 똑같다.

놀이 상황 이틀 후 기억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놀이를 했던 날, 아동에게 유도 질문과 객관적 질문을 했던 실험자가 다시 아동을 개별 면접하였다. 기억 검사의 질문 내용은 유도 질문 조건의 아동에게는 주어진 정보로 제공되었던 내용이

2) 실험을 도와 준 민지영과 동정주 유치원 박범혁 원장님, 그리고 충북대 정영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객관적 질문 조건의 아동에게는 새로운 정보로 제공되었던 내용이었다.

### 결과 및 논의

조건(유도 질문 조건/객관적 질문 조건)에 따라 기억 검사에서 아동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조건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확 반응 점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정확 반응 점수 평균 (전체 4점, ( )안은 표준편차)

성별(피험자수)	조건		
	유도 질문	객관적 질문	전체
남(20)	1.09(1.14)	3.10(0.74)	2.05(1.40)
여(20)	2.10(1.10)	3.22(0.97)	2.63(1.16)
전체(40)	1.57(1.21)	3.16(0.83)	2.33(1.3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건 이후에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의 정확 반응은 전체 4점 중 1.57점이었으며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의 정확 반응은 3.16점이었다. 곧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은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에 비해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 정확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유도 질문을 들었던 여아들의 정확 반응은 전체 4점 중 2.10점이었으며 남아들의 정확 반응은 1.09점이었다.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여아들의 정확 반응은 전체 4점 중 3.22점이었으며 남아들의 정확 반응은 3.10점이었다. 곧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정확 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

조건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잘못된 반응 점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의 잘못된 반응 점수는 전체 4점 중 2.10점이었으며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의 잘못된 반응 점수는 0.68이었다.

표 4. 잘못된 반응 점수 평균 (전체 4점, ( )안은 표준편차)

성별(피험자수)	조건		
	유도 질문	객관적 질문	전체
남(20)	2.55(1.21)	0.80(0.79)	1.71(1.35)
여(20)	1.60(1.07)	0.56(0.53)	1.11(0.99)
전체(40)	2.10(1.22)	0.68(0.67)	1.43(1.22)

곧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은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보다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도 질문을 들었던 여아들의 잘못된 반응 점수가 전체 4점 중 1.60이였으며 남아들의 잘못된 반응은 2.55점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여아들의 잘못된 반응은 전체 4점 중 0.56이었고 반면 남아들의 잘못된 반응은 0.80점으로 나왔으므로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건 이후에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은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에 비해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 유도 질문에서 유도한 방향으로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또한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잘못된 반응이 적었다.

조건에 따른 아동의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억 검사에서 아동이 보인 반응에 대해 성별(남아/여아)X조건(유도 질문 조건/객관적 질문 조건)의 2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남아/여아)과 조건(유도 질문조건/객관적 질문조건)은 모두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아동의 반응에 대해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36)=8.70, p < .01$ ). 아동의 반응에 대해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은 사건 이후에 유도 질문을 들은 아동들은 객관적 질문을 받은 아동들에 비해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 잘못된 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의 주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F(1,36)=1.99$ )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성별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36)=0.02$ ).

곧 사건 이후 유도 질문의 주어진 정보를 긍정 하는 오류를 보였던 아동들은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 긍정 하는 오류를 더 많이 보였다.

질문의 내용에 따라 아동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 평균을 조건별로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질문에 따른 평균반응 (( )안은 표준편차임)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질문 3에서 아동들은 다른 질문들에 비해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이는 특히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질문 3의 반응 점수는 다른 객관적 질문들과 비교해 잘못된 반응을 많이 보인 것이다.

아동의 반응이 질문 내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반응에 대해 성별X조건X질문내용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36)=8.70, p < .01$ ). 곧 사건 이후에 유도 질문을 들은 아동들은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에 비해 잘못된 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F(1,36)=1.99$ ) 성별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36)=0.02$ ).

그러나 질문내용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108)=4.08, p < .01$ ). 곧 질문 내용에 따라 아동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질문 3에서는 다른 질문들보다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질문 내용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1,108)=4.08$ ), 질문 내용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 $F(1,108)=4.08$ ), 성별, 조건, 질문 내용의 상호

작용 효과( $F(1,108)=4.08$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질문 3과 다른 질문들(질문1, 질문2, 질문4)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대비분석(contra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질문 3과 다른 질문들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질문 3에서 아동들은 나머지 질문들(질문 1, 질문 2, 질문 4)보다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F(1,108)=7.50, p < .01$ ). 곧, 놀이 상황에서 있었던 사건 중 실험자가 아동의 코를 뒤아주었는지에 대해서 아동들은 잘못된 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질문 3과 다른 질문들(질문1, 질문2, 질문4)간의 대비효과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질문3과 나머지 질문들(질문1, 질문2, 질문4)간의 차이가 유도 질문조건과 객관적 질문 조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비비교(contrast comparison)를 실시하였다. 그

조건	질문				
	질문1	질문2	질문3	질문4	전체
객관 질문	0.75(0.44)	1.05(0.22)	0.50(0.51)	1.05(0.22)	0.83(0.43)
유도 질문	0.50(0.76)	0.70(0.47)	0.50(0.76)	0.50(0.60)	0.55(0.65)
전체	0.63(0.63)	0.88(0.40)	0.50(0.64)	0.78(0.53)	0.69(0.57)

결과 조건에 따라 질문 3과 다른 질문들의 차이가 나타났다( $F(1,108)=4.13, p < .05$ ). 곧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은 질문 3에서 다른 질문들(질문1, 질문2, 질문4)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은 질문 3에서 다른 질문들(질문1, 질문2, 질문4)보다 잘못된 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

요약하면 사건 직후에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은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과 비교해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곧 유도 질문을 듣고 질문의 주어진 정보를 긍정 하는 오류를 보였던 아동들은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묻는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도 그 내용

을 긍정하는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또한 질문내용에 따라서도 아동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는데 질문 3(실험자가 아동의 코를 닦아주었는지)에서 다른 질문들보다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질문 3과 다른 질문들의 차이는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과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은 질문 3에서 다른 질문들(질문 1, 질문 2, 질문 4)보다 잘못된 반응을 많이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객관적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은 질문 3에서 다른 질문들보다 잘못된 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

## 전 체 논 의

아동의 진술 정확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아동들이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들이 유도 질문을 듣는 경우 객관적 질문을 듣는 경우보다 질문에서 유도하는 반응을 많이 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사건 이후 유도 질문을 통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었던 아동들이 이후에 잘못된 반응을 더 많이 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1에서 유도 질문은 질문의 제시방식을 조작하여 질문 자체가 사건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는 형식의 질문이라고 정의하였다. 곧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의 구조를 통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주어진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 아동들은 그 정보를 사실로 전제하고 새로운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잘못된 반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어진 정보로 제공한 유도 질문의 경우에는 객관적 질문 조건의 아동들보다 유도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유도 질문을 들은 아동들이 유도된 반응을 많이 했다는 실험 1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내린 유도 질문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하여 더욱 의의가

있다. 유도 질문의 영향을 알아보는 선행연구에서는 유도 질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마다 질문에 포함된 암시의 정도가 각기 달랐으며 따라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유도 질문이란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의 문장 형식을 통해 구분하고, 주어진 정보를 사실로 전제하고 새로운 정보만 탐색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검증하였다. 유도 질문에서 포함된 암시를 문장형식을 통해 명확히 하고 그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유도 질문의 영향을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유도된 반응 외에, '모르겠다' 반응에 대해서는 유도 질문 조건의 아동과 객관적 질문 조건의 아동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곧 아동들은 유도 질문, 객관적 질문 모두에 '모르겠다'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다. 본 실험의 '모르겠다' 반응에 대한 결과는 Carter 등(199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인데 그의 연구에서 질문 자체가 아동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용어나 어휘를 사용한 경우에도 아동들은 '모르겠다'는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곧 아동들은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질문 내용이 자신이 기억하는 바와 다른 경우, 또는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을 한 경우와 같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모르겠다'는 반응 대신 어떤 쪽으로든 확실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아동들이 '아니오'나 '모르겠다'는 반응 대신 질문에서 제시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아동들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안 경우에 '아니오'나 '모르겠다'는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의 잘못된 긍정

(false alarm)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판단할 위험도 더불어 감소될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사건 이후의 잘못된 정보로 유도 질문을 제공하고 유도 질문이 아동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유도 질문의 잘못된 내용인 주어진 정보를 긍정했던 아동들은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이후의 기억 검사에서도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사건 이후의 잘못된 정보로 이야기(story)를 제공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도 질문을 통해 잘못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건 이후에 유도 질문을 들었던 아동들이 이후에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한다는 결과는 아동을 수사(investigation)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유효한 시사점을 준다. 아동들이 실제로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들은 수사 과정 중에 여러 번 질문을 듣고 진술을 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도 질문의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아동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적절한 면접과 질문이 고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들의 반응이 질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지 사후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질문내용에 따라 아동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질문 3(그 언니랑 놀 때 언니가 지영이 코 닦아줬어?)에서는 다른 질문들(질문1, 질문2, 질문4)보다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자신에게 특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들(Davies, Tarrant, and Flin, 1989; Rudy and Goodman, 1991)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준다. 아동과의 놀이 상황에서 실험자는 간식을 먹는 아동의 입을 닦아주었고 따라서 실험자가 아동의 코를 닦아주었는지 여부는 아동에게 특출하지 않은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아동들이 특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는 반면 특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반응한다면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기준에 좋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아동들이 유도 질문을 듣는 경우 질문이 유도하는 반응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유도 질문의 주어진 정보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듣는 경우 이후에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진술하는지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의 놀이 경험에 대한 실험실 연구였으므로 범죄현장이나 학대경험에 대한 진술능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도 질문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또한 어린 아동들이 유도 질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어떤 상황이나 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는지 또는 부정확하게 기억하는지에 대해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 참 고 문 헌

- 이승복. (1987). 어린이 언어에서 부정문의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ruck, M., Ceci, S. J., Francoeur, E., & Renick, A. (1995). Anatomically detailed dolls do not facilitate preschoolers' reports of a pediatric examination involving genital touch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2), 95-109.
- Carter, C. A., Bottoms, B. L., Levine, M. (1996). Linguistic and Socioemotional Influences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Law and Human Behavior*, 20, 335-358.
- Ceci, S. J., & Bruck, M. (1993).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A historical review and

-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 403-439.
- Ceci, S. J., Ross, D. F., & Toglia, M. P. (1987). Suggestibility of Children's Memory: Psychological Implic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16, 38-49.
- Clark, H. H., Clark, E.V.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Cole, C. B., Loftus, E. F. (1987). The memory of children. In S. J. Ceci, M. P. Toglia, & D. F. Ross (Eds.), *Children's eyewitness memory* (pp.178-208). New York: Springer-Verlag.
- Cohen, R. L., & Harnick, M. A. (1980). The suggestibility of child witness eyewitness to suggestion. *Law and Human Behavior*, 4, 201-210.
- Dale, P. S., Loftus, E. F., & Rathbun, E.(1978). The Influence of the form of the question on the eyewitness testimony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7, 269-277.
- Davies, G. M., Tarrant, A., and Flin, R. (1989). Close encounters of a witness kind: Children's memory for a stimulated health inspec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0, 415-429.
- Dekle, D. J., Beal, C. R., Elliott, R., & Huneycutt, D. (1995). Children as witness. A comparison of lineup versus showup identification method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9, 354-366
- Duncan, E. M., Whitney, P., & Kunen, S. (1982). Intergration of Visual and verbal information in children's memory. *Child Development*, 83, 1215-1223.
- Fivush, R., Hudson, J., and Nelson, K. (1984). Children's long-term memory for a novel event: An exploratory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30, 303-316.
- Fivush, R. (199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autobiographical recall. In G. S. Goodman & B. Bottoms(Eds.), *Child victims and child witness: Understanding and improving testimony* (pp. 1-24). New York: Guilford Press.
- Goodman, G. S., Aman, C., and Hirschman, J. (1987). Child sexual and physical abuse: Children's testimony. In S. J. Ceci, M. P. Toglia, and D. F. Ross (Eds.),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New York: Springer-Verlag.
- Goodman, G. S., & Bottoms, B. L. (1993). *Child victims, child witnesses* (pp. 117-146). New York: Guilford Press.
- Goodman, G. S., & Reed, R. S. (1986). Age differences in eyewitness testimony. *Law and Human Behavior*, 10, 317-332.
- Goodman, G. S., Rudy, L., Bottoms, B., & Aman, C. (1990). Children's concerns and memory: Issues of ecological validity in the study of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In R. Fivush & J. Hudson (Eds.), *Knowing and remembering in young children* (pp. 249-28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pp41-58). New York: American Press.
- Hornby, P. A. (1974). Surface structure and presupposit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 and Verbal Behavior*, 13, 530-538.
- King, M. A. (1984). *An investigation of the eyewitness abilities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Canada.
- Leichtman, M. D., & Ceci, S. J. (1993). The effect of stereotypes and suggestions on preschoolers' report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568-578.
- Loftus, E. F., (1975). Leading questions and the eyewitness report. *Cognitive Psychology*, 7, 560-572.
- Loftus, E. F. & Palmer, J. C. (1974). Reconstruction of Automobile Destruction: An Example of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3, 585-589.
- Loftus, E. F., & Zanni, G. (1975). Eyewitness testimony: The influence of the wording of a question.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5, 295-305.
- Marin, B. V., Holmes, D. L., Guth, M., & Kovac, P. (1979). The potential of children as eyewitnesses. *Law and Human Behavior*, 3, 295-306.
- Murray, S. (1983). *The effect of postevent information on children's memory for an illustrated story*. Unpublishing manuscript, Aberdeen University, Scotland.
- Oates, K., & Shrimpton, S. (1991). Children's memories for stressful and nonstressful events.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31, 4-10.
- Ornstein, P. A., Gordon, B. N., & Larus, D. (1992). Children's memory for a personally experienced event: Implications for testimon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6, 49-60.
- Perry, N. W., & Wrightman, L. S. (1991). *The child witness: Legal issues and dilemmas*. Newbury Park, CA: Sage.
- Peters, D. P. (1987). The impact of naturally occurring stress on children's memory. In S. J. Ceci, M. P. Toglia, D. F. Ross(Eds.), *Children's Eyewitness Memory*. New York: Springer-verlag.
- Peters, D. P. (1991). The influence of stress and arousal on the child witness. In J. Doris (Ed.),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recollections* (pp. 60-7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udy, L. and Goodman, G. S. (1991). Effects of participation on children's reports: Implications for children's testimony. *Developmental Psychology*, 27, 527-538.
- Zaragoza, M. S., McCloskey, M., & Jamis, M.(1987). Misleading postevent information and recall of the original event: Further evidence against the memory impairment hypothesi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3, 36-44.



## 부 록

### 실험 1에서 사용된 질문지

#### 유도 질문

지영이가(아이 이름) 흰색으로 만든 건 동그라미니?

실제: 노란색, 동그라미를 만들

그 안경 쓴 언니는 목걸이를 하고 있니?

실제: 안경 쓰지 않음, 물고기 모양의 큰 목걸이

그 언니가 지영이 코 뒀아 준게 수건이지?

실제: 손수건으로, 입을 닦아줌.

그 언니가 지영이 귀를 만진 손에 밴드를 하고 있었니?

실제: 귀를 만지지 않음, 손가락에 밴드를 하고 있음.

머리가 긴 그 언니는 모자를 썼니?

실제: 머리가 짧음, 모자 착용

그 딸기맛 젤리뽕을 그 언니가 줬니?

실제: 포도맛 젤리뽕, 언니가 줌

그 언니가 지영이 머리를 만질 때 언니한테 삐삐가 왔  
니?

실제: 머리를 만지지 않음, 삐삐 음.

그 언니가 입은 치마는 까만색이니?

실제: 까만색, 바지를 입음

#### 재관적 질문

지영이가 만든 동그라미는 흰색이니?

실제: 노란색, 동그라미를 만들

그 목걸이를 한 언니는 안경을 썼니?

실제: 안경 쓰지 않음, 물고기 모양의 큰 목걸이

그 언니가 수건으로 지영이 코 뒀아 줬니?

실제: 손수건으로, 입을 닦아줌.

그 언니가 밴드 한 손으로 지영이 귀를 만졌니?

실제: 귀를 만지지 않음, 손가락에 밴드를 하고 있음.

모자를 쓴 그 언니는 머리가 길었니?

실제: 머리가 짧음, 모자 착용

그 언니가 준 젤리뽕이 딸기맛이니?

실제: 포도맛 젤리뽕, 언니가 줌

그 언니한테 삐삐음 때 언니가 지영이 머리 만졌니?

실제: 머리를 만지지 않음, 삐삐 음.

그 언니가 입은 까만옷이 치마니?

실제: 까만색, 바지를 입음

### 실험 2에서 사용된 질문지

#### 유도 질문

그 언니가 지영이 머리를 만질 때 언니한테 삐삐가 왔  
니?

실제: 머리를 만지지 않음, 삐삐 음.

지영이가 흰색으로 만든 건 동그라미니?

실제: 노란색, 동그라미를 만들

그 언니가 지영이 코 뒀아 준게 수건이지?

실제: 손수건으로, 입을 닦아줌.

그 언니가 지영이 귀를 만진 손에 밴드를 하고 있었니?

실제: 귀를 만지지 않음, 손가락에 밴드를 하고 있음.

#### 재관적 질문

그 언니한테 삐삐음 때 언니가 지영이 머리 만졌니?

실제: 머리를 만지지 않음, 삐삐 음.

지영이가 만든 동그라미는 흰색이니?

실제: 노란색, 동그라미를 만들

그 언니가 수건으로 지영이 코 뒀아 줬니?

실제: 손수건으로, 입을 닦아줌.

그 언니가 밴드 한 손으로 지영이 귀를 만졌니?

실제: 귀를 만지지 않음, 손가락에 밴드를 하고 있음.

#### 이후의 기억 검사에 사용된 질문지

그 언니랑 놀 때 그 언니가 지영이 머리 만졌니?

지영이는 언니랑 놀면서 흰색으로 만들기 했니?

그 언니랑 놀 때 언니가 지영이 코 뒀아줬어?

그 언니랑 놀 때 언니가 귀 만졌니?

## A Study on the Misleading Questions in Children's Testimony

Park, Ja Kyung. Lee, Seungbok

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istorically there has been a bias against relying on testimony provided by children. This view is based on a belief that young children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misleading questions. Moreover it has been considered that children are susceptible to misleading postevent inform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misleading questions in children's testimony. In experiment 1 children(5 year olds) were presented with misleading questions and nonmisleading questions about what they experienced.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in misleading condition made more biased responses. Children who heard the misleading questions focused on new information considering given information as a matter of fact, so they made more errors. Experiment 2 examined the effect of the misleading postevent informations in children's report. Children(5 year olds) were given misleading and nonmisleading questions(information) after the event. On a retest two day later they were asked about the event again.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revealed that children who had received misleading questions report the biased answers. These results showed that misleading questions had a large impact on children's report. The results from two experiments were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investigations and the associated psychological implication.